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고전산문1] : 토끼전 - 미상

(자라 심중에 크게 기뻐 이에 토끼를 다리고 수변으로 나아가 토끼를 등에 업고 창과에 뛰어들어 남해를 바라보며 돌아오니, 대저 자라의 충성이 지극함을 신명(神明)이 굽어살피사 저 간사한 토끼를 주심이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리오.

이때 토끼 자라 등에 높이 앉아 사면을 돌아보니, 소상강(瀟湘江) 깊은 물은 눈앞에 고요하고, 동정호 너른 빛은 그 갓을 모를러라. 심중에 헤아리되, '내 천우신조로 자라를 만나 세상 풍진과 산중 고초를 다 벗어 버리고 수궁에 들어가 부귀를 누릴지니 어찌 즐겁지 아니리오'하며, 의기양양하여 이에 한 곡조 노래를 부르니 하였으되,

홍진(紅塵)을 하직하고 길이 떠남이여,
물나라히 중산(衆山)보다 크도다.
자라 등에 올라타고 또 감이여,
흰 구름의 오고 감을 웃는도다.
내 장차 사기(史記)의 붓대를 잡음이여,
삼천 수족이 무릎을 꿇리도다.
부귀에 맑고 한가함을 겸함이여,
백 년의 평안함을 기약하리도다.

토끼 노래를 마치고 크게 웃거늘, 자라 일변 웃으며 생각하되, '이놈이 너무도 교만한 놈이로다.'하고, 또한 노래로 화답하니 하였으되,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음이여,
얼마나 분주히 청산에 다녔던고.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아님이여,
창랑을 박차고 갔다 돌아오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룸이여,
한갓 용안의 기쁜 빛을 뵈오리도다.
우리 대왕의 병환이 쾌차하심이여,
종묘사직의 평안함을 하례하리도다.

토끼 자라의 노래를 듣고 심중에 크게 의혹하여 자라 보고 물어 가로되,
"그대의 노래 속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어인 곡절고."
자라 가로되,
"내 우연히 부름이니 무슨 뜻이 있으리오."
토끼 그래도 의혹이 아니 풀려 가로되,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루었다 함과 우리 대왕의 병환이 쾌차하다 함은 무슨 말이뇨."
자라 토끼의 말을 듣고 심중에 헤아리되,

'네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나를 의심할지라도 무익하리라.'
하고, 이에 그 말은 대답지 아니하고 바빠 행하여 순식간에 남해 수궁에 득달하여 토끼를 내려놓으며 가로되,
"그대는 부질없이 나를 의심치 말고 빨리 객관으로 가사이다."
하거늘 토끼 눈을 들어 살펴보니 천지 광활하고 일월이 명랑한데 주궁 패궐(珠宮貝闕)이 반공에 솟아 있고 문과 창에 서기 어렸는지라. 토끼 일변 기꺼운 마음이 다시 동하여 자라를 따라 객관에 이르니 자라 토끼다려 가로되,
"그대는 잠깐 여기 머물라. 내 입궐하여 우리 대왕께 그대와 같이 몸을 아뢰리라."하고, 총총히 나아가거늘, 토끼 그 거동을 보고 심중에 다시 의심하되,
'제 나를 우선 제 집으로 인도하여 멀리 온 터에 술 한잔도 대접지 않고 황망히 궁중으로 들어가니 그 어인 일인고.'
또다시 생각하되,
'아마 나의 높은 이름을 수국 군신이 다 들었으매, 제가 먼저 들어가 저의 임금에게 말씀하여 급히 홍문관 대제학을 제수(除授)하여 불일내로 여러 해 두었던 사기를 닦으려 하기에 골똥하여 사소한 접대는 미처 생각지 못함이로다.'
하고, 생각하고 무료히 혼자 앉았더라.
이때 자라 급히 궁중으로 들어가니, 궁중에 근시하였던 신하들이 자라를 보고 일변 반기며 일변으로 용왕께 고하니, 왕이 바빠 자라를 입시하여 용상 아래 가까이 앉으라 하며 무사히 다녀움을 반기며 토끼의 소식을 묻는데,
자라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어 가로되,
"신이 왕명을 받자와 오호와 삼강을 무사히 지내어 동해가에 득달하와, 중산에 들어가서 늙은 토끼 하나를 백가지로 꺾으며 천 가지로 달래어 간신히 업고 지금이야 돌아와 토끼를 객관에 머무르게 하고 신이 급히 들어왔사오나, 이 사이 옥체미령(玉體靡令)하심이 어떠하옵신지 하정에 황송하오이다."하고, 인하여 토끼 달래던 말씀을 일일이 아뢰었더니, 용왕이 듣기를 다하고 크게 기꺼 무릎을 치며 칭찬하여 가로되,
"경의 충성과 구변은 가히 남해 일국에 하나이니, 하늘이 과인을 도우사 경 같은 신하를 내심이로다."
- 작자 미상, <토끼전> -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신뢰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운명이 예고되어 있다.
 - ④ 주인공들은 서로를 속이기 위해 각자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반복 교차를 통해 사건의 배경을 알기 쉽게 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이 글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표면적 주제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허욕에 대한 경계, 맹목적 충성에 대한 풍자, 권력층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화적 수법은 이러한 주제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① 토끼의 내면 독백이나 노래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명예에 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어.
- ② 자라는 토끼를 희생시켜 충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맹목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과 관련이 있어.
- ③ 용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군.
- ④ 인간이 아닌 동물로 표현한 이유는 풍자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⑤ 토끼가 자라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 그 당시에 지배적인 이념이었음을 암시해.

3. <보기1>과 <보기2>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1> 수궁 <-> 산중(육지)
(지배층) (피지배층, 서민)

<보기2>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願言^a利門
부모께 받은 몸 상하게 말라 不使損遺體
어찌하여 진주를 캐는 사람들 爭口探珠者
목숨 가벼이 여겨 바다 밑에 드는가 輕生入海底
몸이 영화로우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身榮塵易染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렵네
담박한 맛을 누구와 의논하리
세상사람들 단 술을 즐기거니

- ① 위 글에 등장하는 ‘수궁’은 자라에게는 입신양명할 수 있는 공간인 반면, 토끼에게는 지배층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야.
- ② <보기1>의 도식처럼 토끼가 살고 있는 ‘육지’가 약자의 공간라면 토끼를 서민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아도 무방하겠어.
- ③ <보기2>의 ‘바다 밑’과 위 글의 ‘수궁’은 각각 사람들과 토끼를 유혹할 수 있는 곳이야.
- ④ 위 글에 등장하는 ‘주궁패궐’이 토끼를 더욱 현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볼 때, 위 글의 ‘현혹된 토끼’는 <보기2>에서 ‘이욕의 문’을 막지 못하여 ‘바다 밑 진주’를 노리는 자와 유사하군.
- ⑤ 토끼는 ‘육지’에서 ‘수궁’으로의 이동을 통해 ‘물’로 ‘마음의 때’를 씻을 수 있는 이유는, <보기2>에 등장하는 ‘부모께 받은 몸’의 소중함을 수궁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야.

[고전산문2] : 최척전

경자년(1600)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¹⁾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

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이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엽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뿔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 꾸러미 안에서 통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 보려 했다. 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엽불하던 소리가 똑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A] 왕자교 통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옥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봉래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쫓쫓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일이 빠진 사람 같았다. 저
도 모르는 새 통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왜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 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이를 보고 기뻐하는 데 견줄 수 있겠소?”

옥영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통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 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일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 내려왔다.

최척과 옥영은 마주 보고 소리치며 열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

은 없었다.”

최척이 부모님 소식을 묻자 옥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산에서 쫓겨 내려와 강가에 이를 때까지는 모두 무사하셨는데, 해 질 무렵 배에 올라탈 때 경황이 없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 보고 통곡하자 보는 이들도 모두 코끝이 찡했다. 송우가 돈우에게 백금 3정(錠)으로 옥영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고 싶다고 청했다. 그러자 돈우는 발끈 성을 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 친형제 대하듯이 지냈지요. 함께 밥 먹고 잠자며 떨어져 지낸 적이 없건만, 이 사람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천지 귀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비록 어리석다 하나 목석은 아니니, 어찌 이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돈주머니에서 은 10냥을 꺼내 옥영에게 주며 말했다.

“4년을 함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니 나로서는 서글픈 마음 간절하구나. 그러나 온갖 죽을 고비를 겪고서 배필을 다시 만난 것은 세상에 없던 일이니, 내가 만일 제제하게 군다면 하늘이 천벌을 내리시겠지. 잘 가라, 사우(沙于)야! 몸조심, 몸조심하고!”

옥영이 두 손을 맞들어 올려 인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주인어른이 보호해 주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다가 뜻밖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큼니다.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B] 최척 또한 재삼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서 옥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로 돌아왔다. 최척 부부를 구경하러 오는 이웃 뺏사람들의 행렬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중 어떤 이들은 금이나 은, 비단 등을 선물로 내놓기도 했는데, 최척은 그 선물을 모두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송우는 집으로 돌아온 뒤 따로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워 최척 부부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조위한, 「최척전」 -

[어휘 풀이] 1) 안남(安南) : 오늘날의 베트남을 가리킴.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척은 옥영을 만나기 위해 송우를 따라 안남으로 갔다.
 - ② 돈우의 내적 갈등은 옥영의 성별에 대한 자신의 판단 착오로 인한 것이다.
 - ③ 옥영과 최척은 갈등의 중재자인 송우의 도움으로 재회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 ④ 최척은 시를 읊은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통소 소리를 내고 있다.
 - ⑤ 옥영은 최척과 재회하기 전까지 남장을 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여 왔다.
5. 윗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가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외적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는 부분이라면, [B]는 그러한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 ②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B]와는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한 잦은 장면의 변화로 긴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A]로 인한 인물의 행동의 변화가 사건의 전개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B]와 같은 결과를 이끌고 있다.
 - ⑤ [A]에서 [B]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겪게 되는 인물의 지위 상승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위한의 「최척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애정 문제, 가족의 헤어짐, 재회의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족적 영웅의 활약상을 통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자 창작된다. 그러나 「최척전」은 특별한 민족적 영웅의 무용담(武勇談) 없이, 전쟁으로 인한 당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또한, 넓은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직접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없는 안남까지 소설의 배경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소설의 서술 공간의 확대 및 세계 인식의 확장 또한 가능케 한다.

- ① 최척이 그의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고난을 잘 알게 만들었군.
- ② 작가가 의기에 찬 분노를 드러낸 두홍의 성격을 해설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전근대적인 인물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군.
- ③ 고난을 당하는 민초들의 삶을 보여주는 한편, 그 속에서 특히 그 고난을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여인상을 그려내어 역경의 극복을 현실감 있게 펼쳐고 있군.
- ④ 전쟁에 직접 관계가 된 국가는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 안남까지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소설의 현실적 공간 서술 역시 확장되었겠군.
- ⑤ 구체적 지명과 사건, 그리고 현실 속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도술 등의 전기적 요소가 적다는 점은 기존의 소설과의 두드러진 차이겠군.

<보기 참고(적벽가) : 최척전과 적벽가 모두 전쟁으로 인해(세계로 인한) 민중의 아픔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한 군사 나았으며,
“너는 아내 생각으로 우는구나. 너 내 설움 들어 보라. 나는 남의 오대독자, 사십이 넘어가되 남녀간에 자식 없어 불효죄(不孝之罪) 많은 중에, 무자(無子)한 죄 크다기에 자식을 보려 하고 온갖 정성 다 들였다. 명산대찰(名山大刹), 영신당(靈神堂)과 고묘총사(古廟叢祠), 성황당, 석불, 미륵 서 계신 데 지성으로 제사하고 가사시주(袈裟施主), 인등시주(引燈施主), 창호시주(窓戶施主), 백일산제(百日山祭), 무수히 하였더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신(信)든 나무 꺾어질까. 우리 아내 포태(胞胎)하여 또둑또둑 배가 불러 오륙삭이 넘어가니 부부의 좋은 마음 조심이 극진이다. 석부정부좌(席不正不坐), 할부정부식(割不正不食), 목불시악색(目不視惡色),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 태교를 다하여서, 십삭이 찬 연후에 순산으로 득남하니, 천지간 좋은 일이 이 밖에 또 있는가. 칠일까지 소(素)를 하고, 칠칠일에 큰 굿하고 백일에 대연(大宴)하고 첫돌에 큰 불공, 첫살이 점점 올라 빵긱빵긱 웃는 양, 터덕터덕 뒤집는 양, 아장아장 걷는 양, 작강작강 길라아비 휘휘 온갖 장난 다 할 적에, 그 사랑이 어떻겠나. 선영의 음덕인가 석가님이 보내셨는가. 금을 주고 너를 사라 옥을 주고 너를 사라. 사씨(謝氏)네 집 보배나무, 서씨(徐氏)네 집 기린 새끼, 상호봉시(桑弧蓬矢) 이사방(以射四方) 호반(號班)질을 시켜 볼까. 인생 팔세 개입소학(皆入小學) 글공부를 시켜볼까. 밤낮으로 농장지경(弄璋之慶) 철 가는 줄 모르더니, 전장에 잡혀 와서 내 아들 못 본 지가 지금 벌써 몇 해 되고. 아빠아빠 우는 소리 귀에 그저 쟁쟁하네. 이 몸이 아니 죽고 설령 살아 간다 하되, 아동상견불상식(兒童相見不相識 笑問客從何處來)인데 만일 불행 이 몸 죽어 골포사장(骨暴沙場) 하거드면 자식 다시 볼 수 있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고전산문3] : 심청전 - 미상

[앞부분의 줄거리] 심봉사는 비록 봉사이기는 하나 착한 아내 곽씨 부인과 사이 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심청이 태어나자마자 산후 여파로 곽씨 부인이 죽게 되고, 가정은 위기에 처한다. 15년 후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나아가 벼사람들의 위안을 위해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게 되나 용왕에게 구함을 받고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버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후에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먹이라 하니, 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 었다. 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부왕(父王)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며,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감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본디 천일주를 맡아보다가 노군을 불쌍히 여겨 술을 훔쳐 먹이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니, 슬픈 마음이 새로워 부인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도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면 전날의 고초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니 어찌 천명을 어기겠느냐?”

하고, 시녀를 명하여,

“청을 후원 별당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하였다.

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여놓은 것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불쌍하다 내 딸아, 세 살에 어미를 잃고 가련한 어린 아기 어미를 부르짖어 울 적에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목숨이 모질어 죽지 못하고 사는 중에 앞 못 보는 병신까지 되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집안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 하루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벌어들가 잠지도 배고프지 않게 해 주더니, 이제 아버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네 정성은 지극하나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아, 하늘이여, 집안 살림이 어렵거든 눈이나 성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할 일이지, 제 어찌 애를 그토록 태우며 죽을 곳에 나아갔단 말이나? 슬프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한데 나는 오랜 병에 성한 자식을 눈앞에서 비명원사(非命冤死)케 하니, 설령 천지귀신이 그릇되게 여기지 아니하여 눈이 뜨인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하며, 이렇듯 밤낮으로 청을 부르며 통곡하니 이웃 사람이 그 우는 소

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애통해 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듬어 보니, 청이 벌어들 모아 둔 양식과 마른 고기 반찬과 익힌 음식이 그릇마다 담겼거늘, ㉣만지는 족족 가슴이 막히고 간장이 녹는 듯하여 아무리 슬픔을 억제하려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시금 딸을 부르짖어,

“불쌍하다, 너는 병신 아버를 이같이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너를 죽을 곳에 보내고도 태연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하며,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눈바람이 몰아쳐 뼈에 사무치고 적막한 빈집에 인적이 끊어지니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청이뿐이었고, ㉤얼굴은 핏색하여 뼈만 남아 있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초월적 인물의 발화를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 교차를 통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서술자가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35. 윗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설화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가 태어나기 전 어비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국가적 문제가 없는 안정적 상태이다. 그러나 짐을 치는 이가 점지한 결혼 날짜를 어기고 서둘러 혼인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아 일곱 번째 딸이 바리테기를 내쫓은 후, 대왕부부는 천벌을 받아 죽을병에 걸리게 된다. 즉,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슴지 않고 지옥에 직접 다녀오는데, 약수를 얻기 위해 지옥에서 수년간의 고통을 참고 견딘다. 그리고 약을 구해 초월계에서 현실계로 돌아와 대왕 부부를 소생시킨다. 즉, 이 설화는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을 위한 통과제의의 순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바리공주와 심청이 태어나기 전의 가정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군.
- ② 심청과 바리공주가 각각 태어나거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바리공주와 심청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효(孝)의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바리공주는 현실계가 아닌 초월계에서 모진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심청의 고난과는 다소 차이가 있군.
- ⑤ 바리공주와 심청이 두려움 없이 각각 초월계와 인간계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겪는 고난 이후의 기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군.

[고전산문4] : 광문자전 - 박지원

앞부분의 줄거리 : 광문은 걸인이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움막에는 광문과 병이 든 거지 아이만 남고 다른 거지들은 모두 구걸하러 나가고 없었다. 거지 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 광문이 불쌍히 여겨 밥을 얻으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고 말았다. 걸인들이 돌아와 광문이 아이를 죽였다고 하면서 광문을 내쫓았다. 광문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마을 집에 숨어들었다가 집 주인에게 들켜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진한 광문

의 말을 들은 주인은 광문을 놓아 주었다.

광문은 사례를 하고 거적때기를 하나 얻어 가지고 가 버렸다. 집주인은 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

여러 거지들이 한 시체를 끌어 수포교까지 오더니 그 다리 밑에다 버리는 것이었다. 광문은 다리 밑에 숨었다가 거적때기로 둘둘 싸서 등에다 걸머지고 서대문 밖 공동묘지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이것을 숨어서 보고 있던 집주인은 달려들어 광문의 손을 잡았다. 광문은 이때에 전후 사정을 남김없이 다 말했다.

이것을 듣고 감탄한 나머지 광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주는 등 후대하였다. 마침내 광문을 어느 약장사하는 부잣집에 천거하여 주었다.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한 지 오래된 어느 날, 그 집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며 힐끔힐끔 돌아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살펴보고 다시 나가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에 못마땅한 눈치였다. 불일을 다 보고 돌아온 주인은 방안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며 광문을 노려보고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굴빛을 고치고는 말이 없었다.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만 묵묵히 일할 뿐 주인 눈치가 불쾌하다고 해서 무단히 그 집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집주인의 처조카 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주인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 아저씨한테 돈을 좀 취하고자 찾아 왔었는데 마침 안계셔서 방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갔는데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④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후회하며 광문에게 사과를 하였다.

“나는 용졸한 사람이고. 공연히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제부터는 그대를 대할 면목조차 없습니다.”
하며 아는 사람이나 친구인 부자나 또는 큰 장사꾼 그리고 종실과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광문을 행실이 옳고 바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으레 광문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느덧 두서너 달 사이에 사대부들까지도 광문을 옛날 어진 사람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에 서울 장안에서는 모두들 광문을 후대하여 그를 천거해 준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보고 또한 약장사하는 부자 역시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하였다. 돈놀이하는 사람이 전당포를 하는 데 있어서 목걸이, 옷, 그릇, 그림집, 토지 및 종문서 등 물품을 담보로 영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광문은 아무런 전당을 잡히지 않고도 천금을 대부 받을 신임이 있었다.

그러나 광문은 지극히 얼굴이 못났었다. 말썹씨도 없어서 사람을 움직일만한 능력이 없고 입은 커서 주먹 둘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아주 심한 장난꾸러기여서 별별 짓을 다 하였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상대방을 서로 헐어서 말하기를

“네 형이 달문이지.”

하면 못난 것을 상징하므로 큰 욕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달문이 광문의 별명이었던 까닭이었다.

광문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옷통을 벗어젓히고 덤벼들며 무엇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엎드려서 땅에다 금을 긋고 잘잘못을 가리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온 장터 사람들은 모두 웃고, 싸우던 사람도 또한 웃으며 헤어져 버린다.

광문은 나이 사십이 넘도록 머리를 땅은 총각이었다. 사람들이 장가를 권하면,

“어여쁜 계집의 얼굴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법이요. 그러나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지요. 여자도 또한 잘생긴 남자를 희망하거든요. 나는 이런 추한 얼굴을 하고서야 어찌 계집이 따르려고요.”

또 집을 장만하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 처자가 없는데 집을 장만해서 무엇하오. 아침에 일어나 노래 부르며 시내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고 해가 저물면 부잣집 문턱에서 잔대도 장안 호수가 팔만인데 날마다 그 장소를 옮겨도 내 생전에 다 끝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 박지원, 「광문자전」 -

2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대화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박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 ② 여러 개의 삽화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여 주인공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이야기마다 정보 전달자를 달리 설정하여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당대 현실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은 비천한 거지인 광문의 순진성과 거짓 없는 인격을 그려 양반이나 서민이나 인간은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여 권모술수와 허위의식이 판을 치던 당시의 양반사회를 은근히 풍자하고 양반 계층의 각성을 요구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기존 소설이 지니고 있었던 재자가인 형의 주인공 설정을 탈피하여 비천한 신분을 주인공으로 하였다는 점, 조선 후기의 경제상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악인과 선인의 대립 구조 및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넘어서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① 광문이 거지 아이의 시신을 잘 묻어주는 것을 보니 광문의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지는군.
- ② 광문이 주변 사람들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순수한 인격이 주변 인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 ③ 광문의 선행이 오히려 약장사하는 집주인에게 의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니 고전 소설의 전형적 특징인 선악의 대립구조에서 탈피했다고 봐야 하겠군.
- ④ 약장사하는 부자가 광문에게 사과하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부자와도 같은 태도가 양반 사회에서도 필요함을 드러낼 수 있겠군.
- ⑤ 광문이 추한 얼굴 때문에 장가드는 것을 사양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인물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작가는 허위를 일삼는 양반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했겠군.

23. 위 글과 관련하여 던질 수 있는 <보기>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 기출>

— <보 기> —

모든 예술 중에서 소설은 가장 재미있게 내가 사는 세계는 살 만한 세계인가 아닌가를 반성케 한다. 일상성 속에 매몰된 의식에 그 반성은 채찍과도 같은 역할을 맡아 한다. 이 세계는 과연 살 만한 세계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

- 김 현, <소설은 왜 읽는가>

- ① 공연히 남을 불신하는 풍조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지는 않은가?
- ② 요즘 우리 사회는 내면을 다지기보다 외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 ③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신용 사회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 ④ 주인공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강한 의지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 ⑤ 불우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점차 각박해지는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고전산문5]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비연계),만복사저포기 - 김시습

(가)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에 살던 개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 은 몇 덩어리와 재물 약간이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금, 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五冠山) 기슭에 합장(合葬)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또한 찾아들었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친척과 귀한 손의 길흉사(吉凶事)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어떤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째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올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侍婢)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A][도적 때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물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遊昏)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巫山)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니**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견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荒天)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로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예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써 장사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효(純孝)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떨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낭군님께서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구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오관산 : 경기도 장단 서쪽 30리 지점에 있는 산 이름
- *시비 : 곁에서 시중 드는 계집종
- *옥루춘곡 : 악고의 이름
- *유혼 : 구천에 들지 못한 채 떠도는 혼
- *무산선녀 : 무산에 있는 선녀로, 초나라의 희왕과 양왕을 만나 사랑을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 *순효하고 : 순종하여 효성을 다하고
- *명부 : 관계자의 이름을 적은 장부

(나) 그가 문 안에 들어서자 용왕은 절운관(切雲冠)을 쓰고 칼을 차고, 손에 ㉡홀(笏)을 쥐고 뜰 아래로 내려와서 맞이하였다. 그를 이끌고 다시 뜰 위로 해서 궁전으로 올라가더니, 앉기를 청하니 그것은 수정궁 안에 있는 백옥결상이었다. 한생(韓生)은 엎드려 굳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어리석은 백성은 초목과 함께 썩을 몸이운데, 어찌 감히 거룩하신 임금님께 외람히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

겠습니까?”

용왕은 말하였다.

“오랫동안 선생의 명성을 들어 왔습니다만 오늘에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의아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손을 내밀어 앉기를 청하였다. 한생은 세 번 사양한 후에 자

리에 올랐다. 용왕은 남쪽을 향해 칠보(七寶)로 만든 교의(交椅)에 걸터앉았고, 한생은 서쪽을 향해 앉았는데, 교의에 앉기 전에 문지기가 와서 말씀을 올렸다.

“손님이 오십니다.”

용왕은 또 문 밖으로 나가서 맞이해 들었다. 세 사람이 붉은 도포를 입고 ㉠채색 수레를 타고 나타났다. 위의(威儀)와 시종들로 보아 임금 입에 틀림없었다.

용왕은 또 그들을 궁전 위로 인도하였다. 한생은 들창 밑으로 몸을 비겼으나 그들이 자리에 앉은 후에 인사를 청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용왕은 그들 세 사람에게 권해서 동쪽을 향해 앉히고는 말하였다.

“마침 인간 세상에 계신 문사 한 분을 모셔 왔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의아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명하여 한생을 모셔 오게 하였다. 그가 재빨리 나가서 인사를 하니 그들도 모두 머리를 숙이고

답례를 하였다. 한생은 윗자리에 앉기를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여러 신(神)께서는 귀중하신 몸이오나 저는 하나의 가난한 선비올시다. 감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윗자리를 굳이 사양하니 그들은 말하였다.

(중략)

한생이 돌아오려고 하니 그 문들이 첩첩이 싸여서 앞이 ㉡아득하여 갈 길을 알 수 없었으므로 사자에게 말하여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다. 한생은 본디 있던 자리에 도착하자 용왕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였다.

“대왕의 은덕으로 좋은 경치를 두루 구경하였습니다.”

두 번 절하고 작별하니 이에 용왕은 산호반 위에 야광주 두 개와 빙초 두 필을 담아서 전별의 노자로 주고 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하였다. 세 신도 한꺼번에 하직하고는 수레를 타고 곧 돌아갔다. 용왕은 다시 두 사자에게 명

하여 산을 뚫고 물을 헤치는 ㉢서각(犀角)을 가지고 인도하게 하였다. 사자 한 사람이 한생에게 말하였다.

“선생께선 내 등에 올라타고 반나절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한생은 그 말대로 하였다. 사자의 한 사람은 서각을 휘두르면서 앞에서 인도하니, 마치 공중으로 올라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다만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윽고 소리가 그치어 서생이 눈을 떠 보니 다만 자기 몸은 거처하는 방안에 누워 있을 뿐이었다.

한생이 문 밖에 나와서 보니 하늘의 별은 드문드문하고 동방은 밝아 오며, ㉣닭은 세 회를 쳤는데 밤은 벌써 오경(五口)이었다. 빨리 그 품속의 물건을 찾아서 보니 야광주와 빙초가 있었다. 한생은 이 물건을 상자 속에 깊이 간직하여 소중한 보물로 삼고 남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 후에 한생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는 생각을 두지 않고 명산(名山)에 들어갔는데, 그가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었다.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남과 시련, 이별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비극성을 더하고 있다.
- ② 작품 안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시를 삽입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삽입 시를 통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 ④ 남자 주인공의 뛰어난 재능이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 ⑤ 전기성을 일제히 배제하고 현실적인 색채를 가미하여 당대 사회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2. (가)와 (나)의 작품의 공통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뛰어난 재능이 현실에서 빛을 발휘한다.
- ② 일상적 경험을 넘어선 기이한 상황이 존재한다.
- ③ 시를 삽입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에 기여하고 있다.
- ④ 우화적인 성격의 글로 대상을 풍자하고자 한다.
- ⑤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여 골계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참고 자료> : 보기로 출제 가능

김시습은 21세 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찬탈’ 소식을 듣고, 보던 책들을 모두 모아 불사른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산사를 떠나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김시습은 이때까지 사부학당(四部學堂)에 입학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본시 벼슬길에 뜻이 없었거나 아니면 문지(門地)로 보아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무인(武人)이었던 까닭에 사회적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 현실에서 해결 불가능한 것을 초현실적 세계에서 드러냄으로써 작가의 욕구를 해소한다.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남원(南原)에 양씨 성을 가진 서생이 있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 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바야흐로 봄이 되어 꽃이 무성히 피어서 마치 구슬나무에 은덩이가 매달린 것 같았다. 서생은 달밤이면 늘 그 나무 아래에서 머뭇거리며 낭랑하게 ㉠시를 읊곤 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쓸쓸한 마음 벗해 주나
달 밝은 밤을 외로이 저버리니 가련하도다.
청춘의 나이에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어디선가 어여쁜 이가 통소를 부는구나.

비취새는 외로이 날아 짝을 짓지 못하고
원앙새는 짝 잃고 맑은 강물에 먹감는데
어느 집에 언약 있나 바둑돌 두드리고
밤 등불에 점치는 시름겨워 창에 기대노라.

읊고 나자, 홀연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으려 할진대,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리오?”

서생은 속으로 기뻐했다.

다음은 곧 3월 24일이었는데, 이 고을 풍속에 만복사에서 등불을 켜고 복을 빌었다. 총각처녀들이 몰려들어 각각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 불공을 마치니 사람들이 드물어졌다. 서생은 소매 속에 저포(樗蒲)를 넣고 가서 불전(佛前)에 던지면서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베풀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지시거든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빌 뿐입니다.

축원을 마치고 나서 저포를 던지니 과연 서생이 이겼다. 곧 불전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

“업(業)은 이미 정해졌으니 허튼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불좌(佛座) 밑에 숨어서 그 약속을 기다렸다.

얼마 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는데 나이는 열대여섯쯤이요, 머리는 두 가닥으로 늘어뜨리고 화장기가 별로 없었다. 자태가 아름다워서 선녀나 천녀(天女) 같았는데, 바라보니 태도가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손으로 기름병을 이끌어 등불을 돋우고 향을 쫓은 다음,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는 한숨지으며 탄식했다.

“인생의 박명(薄命)함이 어찌 이렇듯 할까?”

그리고 나서 품 속에서 글을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아무 지역 아무 곳에 거주하는 하씨 아무개가 삼가 올립니다. 지난번 변방이 무너져 왜구가 침입하여 무기들이 눈 앞에 가득 찼고 햇불은 한 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집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잡아다니 사방팔방으로 달아나고 도망쳐서 친척과 하인들도 난리통에 흩어졌습니다. 칩은 버들 같은 약한 몸으로 멀리 달아날 수 없어서 깊은 규방에 들어가 끝내 그윽한 정절을 지켜, 밤이슬에 옷이 젖는 짓을 하지 않고 뜻밖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수절한 것을 틀리지 않았다고 여겨 외딴 곳으로 피하여 들판에 살도록 하였는데, 이제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달 밝은 가을과 꽃피는 봄을 상심하면서 헛되어 보내고, 들판 위로 구름이,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무료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텅 빈 골짜기에 숨어 지내며 한평생이 박명함을 한탄하였고, 좋은 밤을 홀로 보내면서 오색 빛갈의 난새가 홀로 춤춘다고 상심하였습니다. 세월 속에 혼백이 사라지고 여름날 겨울 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러한 저를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사람의 생애는 미리 정해져 있고 업보(業報)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운명에도 인연은 있을 것이니, 일찍 배필을 얻어서 즐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토록 지극히 간절한 기도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여인은 글을 바친 후 여러 번 소리 내어 오열하였다.

서생은 틈으로 그 자태를 보고는 정을 진정하지 못하고 뛰쳐나와 말했다.

“조금 전에 글을 바친 것은 무슨 일 때문인가요?”

여인이 바친 글을 읽어 보고 나자 그의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홀로 이 곳에 오셨나요?” / 하자, 그녀는,

“첩(妾)도 사람이오니 어찌 의심을 두겠습니까? 그대는 아름다운 배필을 얻으면 그만이니,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성명을 물을 필요는 없겠지요.” 하였다.

이 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頹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서생은 그녀에게 그 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그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문득 운우(雲雨)의 즐거움을 누렸다.

<중략 줄거리> 날이 새려 하자 여인은 양생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간다. 그 곳에서 3일간 머물면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는다. 여인은 이별의 시간이 되자 은주발을 주면서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한다. 양생은 그녀가 가르쳐 준 대로 그녀를 기다리다가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 부모로부터 여인이 3년 전에 왜구의 난으로 죽었음을 알게 된다. 부모가 떠난 후, 양생은 여인과 만나 그 부모를 찾아가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여인이 보이지 않고 단지 소리만 날 뿐이었다. 이에 놀란 여인의 부모는 양생의 말을 믿고 그를 사위처럼 대접한다.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그 동안 있었던 일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서생도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

고는 더욱 슬픔을 느끼게 되어,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여인의 부모가 서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맡기겠네. 또 내 딸자식 몫으로 밭 몇 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신표로 하여 내 딸자식을 잊지 말게나.”

이튿날 서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개령동 옛 자취를 찾아갔더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 있었다. 서생은 제물을 차려 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지전(紙錢)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 준 뒤에, 제문을 지어 위로하였다.

‘아아, 영이시여. 당신은 어릴 때부터 천품이 온순하였고, 자라면서 얼굴이 말끔하였소. 자태는 서시(西施)같았고, 문장은 숙진보다도 나아소. 규문(閨門)밖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가정 교육을 늘 받아 왔었소. 난리를 겪으면서 정조를 지켰지만, 왜구를 만나 목숨을 잃었구려. 다복쪽 속에 몸을 내맡기고 홀로 지내면서, 꽃 피고 달 밝은 밤에는 마음이 아팠겠구려. 봄바람에 애가 끊어지면 두견새의 피울음 소리가 슬프고, 가을 서리에 쓸개가 찢어지면 버림받는 비단 부채를 보며 탄식했겠구려. 지난번에 하룻밤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비록 저승과 이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면서도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움을 다하였소. 장차 백년을 함께 지내려 하였으니, 하루 저녁에 슬피 헤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중략>

아아. 슬프구려. 그대의 성품은 총명하였고, 그대의 기상은 말쑥했었소. 몸은 비록 흩어졌다지만 혼령이야 어찌 없어지겠소? 응당 강림하여 뜰에 오르시고, 옆에 와서 슬픔을 돌보소서. 비록 사생(死生)이 다르다지만 당신이 이 글에 느낌이 있으리라 믿소.’

장례를 치른 뒤에도 서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재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에서 서생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

서생은 그 뒤에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31. 이 시가 이 글에서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그루 배꽃나무 쓸쓸한 마음 벗혀 주나
달 밝은 밤을 외로이 저버리니 가련하도다.
청춘이 나이에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어디선가 어여쁜 이가 통소를 부는구나.

- ① 배경의 신비감 고조
- ② 사건 전개와 우연성 극복
- ③ 인물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전달
- ④ 작품의 주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암시적으로 제시

32.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다.
- ② 등장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역사적 사실이 작품에 수용되고 있다.
- ④ 영웅적 면모를 지닌 주인공이 등장한다.
- ⑤ 우리 나라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33. 이 글에서 ‘양생’이 부처에게 비는 소원에 나타난 말하기의 특성으로 바른 것은?

- ①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현실의 문제점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 ③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④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내세워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⑤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여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전산문6 : 구운몽 - b형 위주]

(가)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육관 대사가 남악 형산 연화봉에서 불법을 배운다. 동정 용왕이 설법 자리에 늘 참석하자 대사는 제자 성진(性眞)을 보내 사례하는데, 성진은 용왕의 술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중 석교에서 남악 위부인의 시녀 여덟 명을 만나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 준다. 성진은 팔 선녀의 아름다움에 미혹당하고 세속의 부귀공명으로 번뇌하다가, 육관 대사의 명으로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성진은 회남 수주현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楊少游)로 태어난다. 10세에 그 부친이 신선의 세계로 떠나간 뒤,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다가 15세에 과거를 보러 떠난다. 화주 화음현의 진채봉은 양소유의 풍채를 보고 혼약을 정하나, 반란이 일어나 양소유는 남전산으로 피난을 가고, 진채봉은 그 부친의 죄로 궁녀로 잡혀간다. 양소유는 남전산에서 도인에게 음악을 배우고 귀가했다가 이듬해 다시 과거를 보러 떠난다. 낙양에서 기생 계섬월과 인연을 맺고, 장안에서는 여자로 변장하여 거문고 연주를 하면서 당대 최고의 규수인 정경패의 미모를 몰래 살펴본다. 양소유는 장원급제한 뒤 한림학사가 되어 정경패와 정식으로 혼약을 하고, 정경패는 가춘운을 양소유의 첩으로 보내면서 함께 계교를 써 전날 양소유에게 속은 부끄러움을 씻는다. 연나라 왕이 배반하자 양소유는 사신으로 가 항복을 받고, 귀로에 자신을 따라온 적경홍과 인연을 맺는다. 예부 상서가 된 양소유는 통소 연주가 계기가 되어 난양 공주와 혼인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으나, 정경패와의 혼약을 들어 거부하다가 투옥된다.

토번이 침략하자 황제는 양소유로 하여금 대적하게 한다. 연전연승하던 중 토번왕이 보낸 자객 심요연과 인연을 맺고, 꿈속에 백룡담에 들어가 동정 용왕의 딸 백능과와 인연을 맺고는 그녀를 위해 남해 용왕의 아들을 제압한다. 한편, 난양 공주는 정경패를 찾아가 그 인품에 감복하고, 태후는 정경패를 영양 공주에 봉한다. 개선한 양소유는 승상이 되고, 태후는 두 공주와 진채봉을 양소유와 결혼하게 한다. 양소유는 고향의 모친을 모시고 와 잔치를 열고, 황제의 동생 월왕과 낙유원에서 사냥 시합을 하는 등 처첩들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리고 처첩들은 관음보살 앞에서 형제의 의를 맺는다. 세월이 흐른 뒤 양소유는 은퇴를 거듭 청하고, 황제는 마지못하여 취미궁을 하사하여 살게 한다.

(나) 16장. 양 승상은 높은 데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고 성진 상인은 본디의 곳으로 돌아오다.

승상(丞相)이 성은(聖恩)을 감격하여 고두사은(叩頭謝恩)하고 거가(擧家)하여 취미궁(翠微宮)으로 옮아가니, 이 집이 종남산(終南山) 가운데 있으되, 누대(樓臺)의 장려(壯麗)함과 경개(景概)의 기절(奇絶)함이 완연히 봉래(蓬萊) 선경(仙境)이니, 왕 학사(王學士)의 시에 가로되,

“신선의 집이 별로 이에서 낮지 못할 것이니, 무슨 일로 통소를 불고 푸른 하늘로 향하리오?”

하니, 이 한 글귀로 가히 경개를 알리려라.

승상이 정전(正殿)을 비워 조서(詔書)와 어제 시문(御製詩文)을 봉안(奉安)하고, 그 남은 누각(樓閣) 대사(臺榭)에는 여러 남자가 나누어 들고, 날마다 승상을 모셔 물을 임하며 매화를 찾고 시를 지어 구름 낀 바위에 쓰며 거문고를 타 솔바람을 화답하니, 청한(淸閑)한 복이 더욱 사람을 부러워하게 할 바더라.

승상이 한가한 곳에 나아간 지 또한 여러 해 지났더니, 팔월 엄간

(念間)은 승상 생일이라, 모든 자녀 다 모여 십 일을 연하여 설연(設宴)하니 번화(繁華) 성만(盛滿)함이 옛날에도 듣지 못할러라. 잔치를 파하고 여러 자녀가 각각 흠어진 뒤 문득 구추가절(九秋佳節)이 다다르니, 국화 봉오리 누르고 수유(茱萸) 열매가 붉었으니 정히 등고(登高)할 때라, 취미궁 서녘에 높은 대(臺) 있으니, 그 위에 오르면 팔백리 진천(秦川)을 손바닥 금 보듯이 하여 가린 것이 없으니, 승상이 가장 사랑하는 땅이더라.

이 날, 두 부인과 여섯 남자를 데리고 대에 올라 머리에 국화를 꽂고 추경(秋景)을 희롱할새 ㉡입에 팔진(八珍)이 얹어(厭厭)하고 귀에 관현(管絃)이 싫증난지라, 다만 춘운(春雲)으로 하여금 과함(果盒)을 붙들고 섬월(蟾月)로 옥호(玉壺)를 이끌며 국화주(菊花酒)를 가득 부어 처첩(妻妾)이 차례로 헌수(獻壽)하더니, 이윽고 비긴 날이 곤명지(昆明池)에 돌아지고 구름 그림자 진천(秦川)에 떨어지니, 눈을 들어 한번 보니 가을빛이 창망(滄茫)하더라. 승상이 스스로 옥소(玉簫)를 잡아 두어 소리를 부니 오오열열(嗚嗚咽咽)하여 원(怨)하는 듯하고, 우는 듯하고, 고할 듯하고, 형경(荊卿)이 역수(易水)를 건널 적 점리(漸離)를 이별하는 듯, 패왕(霸王)이 장중(帳中)에 우희(虞姬)를 돌아보는 듯하니, 모든 미인이 처연(淒然)하여 슬픈 빛이 많더라.

양 부인이 옷깃을 여미고 물어 가로되,

“승상이 공을 이미 이루고 부귀 극(極)하여 만인이 부러워하고 천고(千古)에 듣지 못한 바라. 가신(佳辰)을 당하여 풍경을 희롱하며 꽃다운 술은 잔에 가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이 또한 인생에 즐거운 일이어늘, 통소 소리 이러하니 ㉢오늘 통소는 ㉣옛날 통소가 아니로소이다.

(다)

(라) 대사가 가로되,

“네 승흥(乘興)하여 갔다가 흥진(興盡)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干預)함이 있으리오?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 꾸었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莊周)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 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요 어느 것이 진것 것인 줄 분변치 못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은 진것 꿈이요 어느 것은 꿈이 아니뇨?”

성진이 가로되,

“제자가 아득하여 꿈과 진것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說法) 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대사가 들어오라 하니, 팔 선녀가 대사의 앞에 나아와 합장 고두(合掌叩頭)하고 가로되,

“제자 등이 비록 위부인을 모셨으나 실로 배운 일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더니,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에 크게 깨달았으니, 제자 등이 이미 위부인에게 하직하고 불문(佛門)에 돌아왔으니 사부는 끝내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대사가 왈,

“여선(女仙)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佛法)이 깊고 머니, 큰 역량(力量)과 큰 발원(發願)이 아니면 능히 이르지 못하니, 선녀는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팔 선녀가 물러가 낮 위의 연지분을 씻어 버리고 각각 소매로부터 금전도(金剪刀)를 내어 흑운(黑雲) 같은 머리를 깎고 들어와 사퇴되,

“제자 등이 이미 얼굴을 변하였으니 맹세하여 사부 교령(敎令)을 태만(怠慢)치 아니하리이다.”

드디어 법좌에 올라 경문(經文)을 강론하니, 백호(白毫)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 꽃이 비같이 내리더라.

설법함을 장차 마치매 네 귀 진언(眞言)을 송(誦)하여 가로되,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이리 이르니, 성진과 여덩 이고(尼姑)가 일시에 깨달아 불생불멸할 정과(正果)를 얻으니, 대사 성진의 계행(戒行)이 높고 순숙(純熟)함을 보고, 이제 대중(大衆)을 모으고 가로되,

“내 본디 전도(傳道)함을 위하여 중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정법(正法)을 전할 곳이 있으니 나는 돌아가노라.”

하고, 염주와 바리와 정병(淨瓶)과 석장과 금강경 한 권을 성진을 주고 서천(西天)으로 가니라.

이후에 성진이 연화 도장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선과 용신(龍神)과 사람과 귀신이 한가지로 존숭(尊崇)함을 육관 대사와 같이하고 여덩 이고가 인하여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깊이 보살대도(菩薩大道)를 얻어 아홉 사람이 한 가지로 극락 세계(極樂世界)로 가니라.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꿈과 현실의 이중 구조로 삶 속에 꿈이 존재하고 꿈 속에 삶이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구운몽의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 등이 주제 의식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 ③ 꿈 속 양소유의 삶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구성을 탈피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소재목을 통해 벌어질 사건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2.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 ① 위 글과 <보기> 모두 ‘이슬’을 유한한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 ② 위 글의 양소유라는 인물의 이름 의미와 <보기>의 소풍은 잠시 노닐다 간다는 속성이 있는 것으로 서로 유사하다.
- ③ <보기>의 시적 화자의 ‘하늘’은 다시 시적 화자가 돌아갈 곳으로 위 글의 성진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 ④ <보기>의 ‘노을빛’은 위 글의 ‘불생불멸할 정과’를 얻게 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⑤ <보기>는 유한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위 글과 다르다.

3. 위 글(a)과 <보기=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 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 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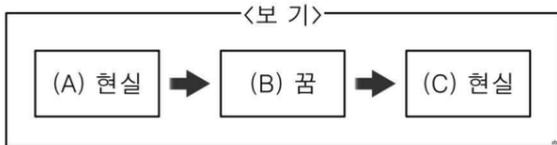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 ① a와 b 모두 꿈을 꾸기 전 번뇌나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② a와 b는 모두 꿈 속에서 꿈을 꾸는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
- ③ a는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반면 b는 가난하게 산 것이 차이점이다.
- ④ a, b 모두 꿈이 주제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⑤ a, b 모두 환몽구조를 바탕으로 한 각몽을 다루고 있다.

4.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구조도를 통해 내린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글 전반에서 현실과 꿈이 교차되는 이원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② (B)를 통해서 (A)보다 높은 차원의 (C)에 도달한다.
- ③ (B)에서의 인물의 삶은 입신양명의 전형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 ④ 인물이 (A)→(B)→(C)의 과정을 겪은 것은 호승이 의도한 바임을 알 수 있다.
- ⑤ (B)에서 다시 꿈을 꾸게 되는 몽중몽(夢中夢) 과정 직후 인물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현대소설1] 만세전 - 염상섭(비연계)

[이전 줄거리] 조선 현실에 별 관심 없던 동경 유학생인 '나'는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배에 오른다. 배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적인 태도에 반감을 느낀 '나'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 자도 물속에서 불쭉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갠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불러 오는데, 즉 조선 콜리*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 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네다, 하하하.”

그 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 자의 상판때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 자의 형이 현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한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다. 쫄자*는 빙빙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왜 남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들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일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꿩질 지경인 바에야, 변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요량 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애들까지 나두 나두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흥…….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원*에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허허허.”

이 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의만면이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 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 데에 일 원서부터 이 원이니까 —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험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일 원 오십 전으로 이 원 오십 전까지 라우. 가령 천 명만 맡아 가지고 와서 보구려. 이삼 삭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일천오륙백 원, 근 이천 원은 간데없는 것일 게니, 그런 벌이가 이판에 어디 있소?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 — 그때에 오백 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천 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 가을 팔백 명이나 북해도 죽미(足尾) 탄광에 보내고 이천 원 돈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의 침이 없이 천 원, 이천 원을 신이 나서 뇌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예예, 예예, 그럴 거예요!”

하며, 일평생에 들어 보지도 못하던 천(千) 자가 붙은 돈 액수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구릿빛 나는 유착한 몸집을 벌떡 일으키어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다시 말을 붙이었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콜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데다가 샅전이 험하니까 안심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라고 꼭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빛까지 갚아 주는데야 제아무런 놀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췌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왔는지, 별안간에 옥객의 한 떼가 또 왁자하고 들이밀

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흠치기 시작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요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궤차: 삼인칭 '그'에 해당하는 말.

* 내지인: 일본인.

* 미구불원: 앞으로 얼마 오래지 아니하고 가까움.

* 실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이익.

* 전차: 어떤 조건을 걸고 앞당겨 쓰는 빚.

1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사건의 인과 관계를 뚜렷이 밝히고 있다.
- ② 작품 속 서술자가 주변을 관찰하며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적 배경을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과 요약적 제시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객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욕탕'은 '나'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 ② '공장'과 '광산'은 조선 노동자들이 착취 당하던 공간이다.
- ③ '변화한 동경, 대관'은 '나'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고통 받는 공간이다.
- ④ '촌뜨기'는 연이은 질문으로 현실 상황을 작품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⑤ 새로운 '욕객'의 등장은 '나'가 옆 사람의 말을 더 이상 엿들 수 없도록 만든다.

17.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조선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 작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제목을 수정하면서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 탄생한 「만세전」은 여로형 구성을 통해 주인공의 의식 변화, 나아가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일본 제국의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근대 식민지화로 인해 분열되고 타자화된 자아, 그리고 식민지화된 조선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감정이 사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 ① 조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일본인들의 만행과 근대화의 이면을 고발하고 있군.
- ② 생계조차 어려운 조선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헌병, 노동자 모집원 등을 소재로 활용한 것은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보려는 노력으로군.
- ④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에 대한 '나'의 분노를 통해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군.
- ⑤ 일본인에게 쫓겨 만주로 가는 등 민족의 억압적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겠군.

18. ㉠과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 넘어 산 ② 누워서 떡 먹기
- ③ 티끌 모아 태산 ④ 금강산도 식후경
- ⑤ 언 발에 오줌 누기

<참고자료1> : 만세전의 핵심은 근대화의 이면 직시입니다. 근대화를 긍정했던 이광수와 달리, 염상섭은 근대화의 이면, 즉 근대화가 일본의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근대화라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가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현대소설2] 토지 - 박경리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최서희는 고향 평사리로 돌아가기 위해 재력으로 매점매석과 친일을 서슴지 않는다. 서희의 하인인 길상은 그녀를 정성껏 보필하지만 그녀에 대한 연민과 애정, 주종 관계에 대한 갈등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녀를 향한 마음을 접기로 한다. 서희는 그런 길상과 신분을 넘어선 결혼을 결심하고 길상과 함께 회령을 방문하여, 길상이 마음을 둔 옥이네를 혼자 찾아간다. 옥이네 집에서 길상의 헌 목도리를 본 서희는 여관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새 목도리를 산다. 여관방에서 술에 취한 길상은 서희가 방에 들어오자 심한 말을 한다.

서희는 망토를 벗어던지고 방바닥서 굴러떨어진 꾸러미를 주워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그것을 길상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진다.

“죽여버릴 테다!”

서희는 방바닥에 주질러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어릴 때처럼, 기가 넘어서 숨이 쉴 틈이 없을 것 같다. 언제나 서희는 그랬었다. 슬퍼서 우는 일은 없었다. 분해서 우는 것이다. 다만 어릴 때와 다르다면 치마꼬리를 꼭 물고 울음소리가 새나지 않게 우는 것뿐이다.

“난 난 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던 말이야.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는 생각을 했던 말이야.”

철없이 주절대며 운다.

“그 여자 방에 그, 그 여자 방에서 목도리를 봤단 말이야, 으흐흐흐 훗…….”

길상의 눈동자가 한가운데 박힌다.

“그 꾸러미가 뭔지 알아? 아느냐 말이야! 으흐흐…… 목도리란 말이야 목도리.”

하더니 와락 달려들어 나뭇그늘진 꾸러미를 낚아챈다. 포장지를 와득 와득 잡아 찢는다. 알맹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것을 집어든 서희는 또 다시 길상의 면상을 향해 집어던진다. **진갈색 목도리**가 얼굴을 스쳐서 무릎 위에 떨어진다.

“**헌 목도리** 내버려! 내버리란 말이야! 흐흐흐…… 으흐흐훗…….”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하며 발광하고 울부짖고 까무라치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그칠 줄 모르게 쾌악을 부리던 유년 시절, 그때 서희를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는 길상이지만 길상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술이 깨고 정신이 번쩍 들지만 무릎 위에 떨어진 목도리를 집었다간 불에 덴 것처럼 놓고 또다시 집었다간 놓고 하면서 서희의 울음을 그치게 할 엄두를 못 낸다. 드디어 그는 목도리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서 마치 흠쳐서 달아나는 도둑놈처럼 방을 뛰쳐나간다. 문밖에서 엿들으려고 서 있던 여관집 주인 여자와 하마터면 이마뺨을 부딪칠 뻔했다. 제 방으로 돌아온 길상은 우리 속에 갇힌 짐승처럼

“미쳤을까? 애기썬 미쳤을까?”

중얼거리며 맴을 돈다.

[A] 다음날 아침 길상은 서희를 몰아냈다. 용정으로 가자는 것이다. 두 남녀는 여관을 나왔고 함께 길을 걸었고 마차에 올랐으나 성난 얼굴로 서로 외면하는 것이었다. 상대편 얼굴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으나

그보다 역시 아직은 서로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명울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분수없이 지결인 길상이나 체모 잃고 울어버린 서희, 분수없었다고 느끼는 이상, 체모 잃었다고 느끼는 이상, 이들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는 거고 거리를 의식하면 할수록 명울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더 깊은 고뇌를 안고 돌아가는 것이다.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때론 절망이, 때론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 그것은 용정을 향해 달리던 마차가 어떻게 되어 그랬던지 뒤집힌 사건이다. 학성(鶴城)에서 안미대(安味臺)에 이르는 중간쯤, 계곡 사이의 좁고 가파로운 내리막길을 달리던 마차가 돌연 뒤집히면서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중략 줄거리] 길상은 기절한 서희를 안고 병원으로 온다. 골절상을 입은 서희가 병실에서 정신이 들자 길상은 안도한다. 밤사이 의자에 앉아 서희 옆을 지키던 길상은 잠시 꿈을 꾸다. 꿈에서 그가 찾아간 귀마동에서 서희의 모친인 별당아씨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깬다.

그새 서희는 잠이 깊이 든 것 같다. 반듯이 누운 몸의 부피는 침대 수평과 거의 엇비슷,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다만 다리 부분 쪽이 솟아올라서 새까만 창유리에 곡선을 그어 놓고 있다. 아무 소리도 기척도 없는 밤, 어떤 일과도 상관하지 않는 정적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만큼 냉랭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서희는 죽지 부러진 새가 되어 누워 있다. 죽지 부러진 하얀 새 한 마리. 하얀 새는 죽어 있는 게 아닐까? 꿈속에서 들었던 얘기처럼, 그 별당아씨의 소식처럼 하얀 저 새는 죽어 있는 게 아닐까? 돌연 엄습해 온 공포가 길상의 떨미를 친다. 손끝에 닿으면 싸늘한 시체일 것 같다. 가까이 다가서서 서희 쪽으로 몸을 기울인 길상은 숨소리를 듣는다. 미동이 없는데 그러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다물린 얽은 입술에서 체취가 풍겨 나온다. 차가운 얼굴이다. 눈시울이 숨결에 나부끼는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다. 입술이 서희 얼굴 가까이…… 불에 닿는다. 마약같이 괴로운 환희가 심장을 친다. 급기야는 격류가 된다! 물보라가 된다! 격류를 휘어잡으며 길상은 물러선다. 상쾌한 땀이 전신을 적시고 물러서는 순간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길상은 느낀다. 끈질기고 집요했던 속박, 격류는 파도가 된다. 파도가 밀려온다. 포효하면서 달려오는 것이다.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가 그에게 무너져 온다. 사나이의 무한한 자신(自信), 거칠고 힘찬 야성(野性)이 드디어 춤을 추는 것이다.

길상이 의자로 돌아와 앉았을 때 복도에서 슬리퍼를 끌며 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끊어진 다음 찻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온다.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다.

매식(買食)을 하면서 이틀 밤을 보낸 길상은 다시 밤을 맞이하기 위해 저녁을 먹으려고 입원실을 나서는데

“좀 어떠시오?”

조수가 물었다.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길상을 따라 나란히 걸으면서 조수는 담배를 꺼내어 권한다.

“고맙소.”

불을 붙여 문다.

“입원하신 분, 누이동생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이신가요?”

그간 무뚝뚝하게 대하던 조수는 아무래도 궁금증을 풀지 않은 배길 수 없었던지 체면 불고하고 묻는다.

“내 처 될 사람ियो.”

- 박경리, <토지>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인물이 지닌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앞날을 예고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④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병렬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려는 등장 인물의 의도와 계획이 서술자의 논평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36. 위 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관’은 서희가 지녀왔던 내적 갈등의 상황이 외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② ‘헌 목도리’는 서희의 질투를 환기하는 소재로 서희가 ‘새 목도리’를 사게 된 계기가 되는 소재이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계기가 되는 사물이다.
- ③ ‘마차’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병실’에서의 길상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계기적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④ ‘하얀 새’는 길상의 시각에서 바라본 서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상에 대해 본래 지녀왔던 애정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⑤ ‘거대한 파도’는 길상이 앞으로 사랑을 쟁취하는데 겪어야 할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신분의 제약을 내포하는 소재이다.

37. [A]를 <보기>와 같이 각색했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37. 길가

길상은 서희와 함께 마차에 오른다.

길상 (마부에게) 용정으로 서둘러 갑시다.

S#38. 달리는 마차 안

길상 (창밖을 보며) (E*) 어제 애기씨에게 지결인 말은……

내 분수를 지키지 못했어.

서희 (눈을 감고) (E) 속내를 다 보이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군. 하지만 꽤 씩한 것은 분명해 …….

S#39. 산 비탈길

두 사람이 탄 마차가 달리는 비탈길 위로 두 명의 사내가 나타난다. 마차를 향해 총을 겨누는 사내들. ‘탕, 탕, 탕

……’ 여러 차례의 총소리. 마차는 길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길로 뛰어 내려가 부서진 마차를 바라보는 사내들.

사내 1 (낮은 목소리로) 최서희, 이제야 원수를 갚는군.

사내 2 (서두르며) 어서 갑시다.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났소.

* E: 효과음

- ① 용정으로 가는 원작의 공간적 설정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마차 안의 모습과 마차 밖의 모습을 모두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
- ② <보기>에는 원작에서 등장하지 않는 다른 부수적 인물을 추가하여 극적인 효과를 더해야지.
- ③ 원작과는 달리 <보기>에서는 길상의 자책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내면 독백을 관객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어야 하겠어.
- ④ <보기>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서희를 바라보는 사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서희에게 있음을 새롭게 조명해야

겠군.

- ⑤ 마차에 오른 후에 용정까지 가는 길목에서 ‘돌연’ 뒤집히는 마차의 사고를 <보기>를 통해 좀 더 개연성 있게 설명해야겠군.

[현대소설3] 삼포가는 길 - 황석영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떠나는 중에 우연히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 정씨를 만난다. 두 사람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하는 길에 술집에서 일하다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가)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에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 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저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뭇 좀 얻어먹구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얼른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도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단 말요.”

(나)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두 말리구 갑시다.”

㉡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 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겨주춤 서 있었다. ㉢ 영달이는 흙벽 틈에 삐죽이 솟은 나무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뿔 만한 것들을 끌어 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 가며 입김을 불어 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택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 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영달이에게 말했다.

“저런 무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다) “들어 봐요. 사실은 그 여덟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백화는 주점 ‘**갈매기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그 여자는 날마다 뒷마루에 걸터앉아서 철조망의 네 귀퉁이에 높다란 망루가 서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보았던 것이다. 언덕 위에 흰 뺑끼로 칠한 반달형 퀘셋 막사와 바라크가 늘어서 있었고 주위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어, 그 안에 철창이 있고 죄지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질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긴 구령 소리에 맞춰서 붉은 줄을 친 군복에 박박 깎인 머리의 군 죄수들이 바깥으로 몰려나왔다. 죄수들이 일렬로 서서 세면과 용변을 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간혹 대어섯 명씩 무장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마을로 작업을 하러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등에 커다란 광주리를 메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들은 줄을 지어 걸어왔다.

“처음에 부산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 술집으로 팔렸었지요. 거기에 갔을 땐 벌써 될 대루 되라는 식이어서 겁나는 것두 없었구요,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두 깨달았던 말예요.”

어느 날 그들은 마을의 제방공사를 돕기 위해서 삼십여 명이 내려왔다. 출감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깔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경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기를 쓰고 찾는 것은 물론 담배였다. 백화는 담배 두 갑을 사서 그들 중의 얼굴이 해사한 죄수에게 쥐어 주었다.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댔다. 날마다 그 어려 보이는 죄수의 손에 몰래 쥐어 주곤 했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라)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 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삼 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리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다.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흘러 다녔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 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 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 이윽히 : 한참 동안. 꽤 오래도록

* 사위 : 사방의 둘레

* 깃 : 새의 보금자리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문체를 통해 사건 전개에 박진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회상의 형식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37. (가)~(라)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감천'은 세 사람의 중간 목적지가 되는 공간이다.
 - ② (가)의 '들창 안'은 세 사람과 단절된 공간이다.
 - ③ (나)의 '폐가'는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④ (다)의 '갈매기집'은 백화에게, 고달프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공간이다.
 - ⑤ (라)의 '차부'는 백화가 이별의 괴로움에 절망하는 공간이다.

38.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 <보 기> —

소설에서 화자는 사건을 말하는 자이고, 초점화자는 사건을 바라보는 자이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는 초점화자가 인물과 긴밀한 상태에서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화자의 목소리에 초점화자의 눈길을 은밀히 삽입시킴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탄력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보기>를 통해 (다)~(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점]

— <보 기> —

인간은 대화(의사소통)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이해한다. 즉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소설 속 인물들 역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데, 대화 과정에서 각 인물들은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다.

한편 조셉 루프트와 해링톤 인그램은 개인적 자아를 '공개된 자아(open self)', '가려진 자아(blind self)', '감춰진 자아(hidden self)', '미지의 자아(unknown self)'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라)에 적용하면 백화의 이야기는 다음 표로 설명할 수 있다.

	백화가 아는 것	백화가 모르는 것
영달, 정씨가 아는 것	공개된 자아	가려진 자아
영달, 정씨가 모르는 것	감춰진 자아	미지의 자아

- ① 백화는 군대 감옥 근처에 있던 갈매기집에서 지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미지의 자아'를 축소하고 있다.
- ② 백화는 막연한 두려움에 군 죄수를 무서워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③ 백화는 헌신적으로 군 죄수를 옥바라지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옷 한 벌 못 사 입어도 행복했던 '가려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⑤ 백화는 여러 고장을 떠돌았던 '가려진 자아'를 표현하여 '미지의 자아'를 축소하고 있다.

[현대소설4. (장르 변환) 나목 - 박완서]

S#42. 안방(밤, 회상)

혁이와 옥이도 다락에서 내려와 있다.
서둘러 군복을 벗고 혁이의 옷을 입는 민이.
어머니와 경아는 밥상을 들고 들어선다.

어머니 (경아에게 군복을 내밀며) 얼른 아궁이에 넣어 태워 버려라.
경아 (군복을 받아들고 나간다)
민이 (밥을 달게 먹는다. 심한 고생을 했음이 역력하다)
혁이 진작 이리로 오시지 그랬어요.
큰아버지 여기라고 안전할 리도 없잖니.
어머니 그야 그렇지만……. 서로 얼굴이라도 보는 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요.
옥이 큰집 식구들은 아직 영동에 그냥 계신 거예요?
큰아버지 부산까지 갈 작정이긴 하다만…….
민이 (식사만 한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포성에 놀라는 식구들.

S#43. 부엌(밤, 회상)

밥상을 치우는 어머니와 경아, 불안한 시선을 주고 받는다.

어머니 깨끗하게 태웠지?
경아 네, 엄마. (사이) 큰아버지와 민이 오빠 죽 우리 집에 계실 건가?
어머니 내일 일을 어찌 알겠느냐. 코앞의 일도 모르겠는데.
경아 전쟁 같은 건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
어머니 불평할 기운도 없구나. 닥친 일은 닥친 대로 취나가는 수밖에
경아 큰집 식구들 잠자린 어디로 할 거예요?
어머니 오밤중에도 뒤지러들 오니 어디…….
경아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와? 먹을 것도 넉넉잡고…… 우리 오빠들도 위험한데.
어머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남도 아닌 사촌끼리 그게 할 소리냐? 누가 들을까 겁나는구나.
경아 엄마 앞이니까 해본 소린데요, 밀.
어머니 잠자릴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구나.
경아 큰아버지께서 계시긴 찬마루 위 다락방이 너무 비좁잖아요.
어머니 식량도 몇 군데로 나눠 감추지들 않니. 혹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함께 몽땅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
경아 엄마, 행랑채 벽장, 어때요?
어머니 너무 외져서…….
경아 (은밀하게) 그러니까 더 안전하죠. 그쪽은 거들떠도 안 보던데.
어머니 원체 오래 비워놓기두 했구……. 지저분해서…….
경아 그러니 좀 좋아요. 후딱 치우면 되죠, 뭐.
어머니 글썽다.
경아 (은밀하게) 우리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어머니 ……?
경아 거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찬마루 위 다락방보단.
어머니 (흠칫하고 민망해 하며) 원 애도…….

(중략)

S#46. 행랑채(밤, 회상)

방바닥에 쌓인 흙더미와 으스스한 기왓장 위에 널브러져 있는 어머니.
헛하니 뚫어진 지붕의 커다란 구멍으로 마구 쏟아지는 달빛.
그 달빛으로 보이는 처참한 광경. 피. 피. 피…….
시뻘겍게 물든 호청. 사방에 고여 있는 검붉은 선혈.
여기저기 흩어진 살점들.
쓰러져 있는 어머니 위로 경아도 함께 실신해 버린다.

S#47. 건넌방(밤, 현실)

회상에 잠긴 경아가 철철 울고 앉아 있다.

경아 (E) 내 오빠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렇게요. 큰아
버지와 민이 오빠는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큰집 식구들을
전처럼 좋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악마의 속삭임 같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행랑채가 더 안전할 거예요, 어머니.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책상다리에 고개를 묻고 숨죽여 우는 경아.

S#48. 마루(밤)

어머니가 탈진한 채 서서 불 밝혀진 건넌방을 보고 있다.
경아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 박완서 원작, 박진숙 각색, 「나목」 -

20.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이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인물이다.
② 큰아버지는 현실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
③ 어머니는 가족 간의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 인물이다.
④ 경아는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인물이다.
⑤ 옥이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21.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42에서는 가까이에서 들리는 대포 소리를 통해 전쟁 상황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고 있군.
② S#46에서 뚫어진 지붕 구멍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은 어머니가 처한 상
황을 부각하고 있군.
③ S#47에서는 효과음(E)을 통해 울고 있는 경아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
러내고 있군.
④ S#42에서 S#43으로의 공간 이동은 어머니와 경아의 은밀한 대화를 가
능하게 하고 있군.
⑤ S#46~S#48에서는 시간 흐름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
를 드러내고 있군.

2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극문학의 등장인물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될 때 작품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위 글에서 폭격으로 인한 오빠들의 죽음
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등장인물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그
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경아와 어머니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다.

- ② 경아네 집을 방문한 큰집 식구들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다.
③ 경아는 사건 발생이 자신의 제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다.
④ 사건 이후에 큰집 식구들에 대한 경아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⑤ 사건의 발생과 그 이후의 경아네 가족의 상황은 인과 관계에 의해 연
결된다.

[현대소설45 나목 - 박완서 작품 설명]

줄거리 : 한국 전쟁 중 서울 명동의 미군 PX 초상부에 근무하는 주인공
이경은 미군에게 초상화를 그려 주는 화가들 속에서 옥희도를 만난다. 자
기 때문에 두 오빠가 폭격으로 죽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
에 두 아들을 잃고 망연 자실한 상태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암울한 집안
분위기로 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경은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옥희
도에게 끌린다. 두 사람은 명동 성당과 장난감 침팬지가 술을 따라 마시는
완구점 사이를 거닐며 사랑을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다.

옥희도는 진짜 화가가 되고 싶어했다. 이경은 어느날 PX에 나오지 않는
옥희도를 찾아 그 집에 갔다가 캔버스에 고목(枯木)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이경은 역시 미군 PX에서 일하는 황태
수라는 청년과 결혼한다. 세월이 흐른 뒤 이경은 옥희도의 유작전(遺作展)
에 가서 지난날 옥희도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고목(枯木)이 아니라 나목
(裸木)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장면은 옥희도의 그림을 처음으로 마주한
화자가 그의 그림을 통해 옥희도의 내면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부분으
로 '나목'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대목이다. 즉, **고목으로 상징되
는 황폐함과 절망의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일찍이 고사된 나목과 같은
존재들, 예컨대 화자와 옥희도의 내면 세계였던 것이다. 이 세계를 옥
희도의 그림을 통해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된 화자의 당혹감
은 따라서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소설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고목(古木)에서 나목(裸木)으로의 변화 욕망,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절
망 속에서 새로이 진실한 희망을 길러 내고자 하는 화자의 전쟁 체험
세대들의 갈망을 담아 내고자 한다.**

<보기로 나올 수 있는 요소>

<나목>에서 공간은 주인공 이경의 의식과 감정, 인물간의 갈등의 원인
을 보여주는 중요 장치로 기능한다. 이경과 모녀가 살고 있는 '고가'는
안락함이나 보호의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그 곳은 오빠들의 죽음을 연
상시키는 곳이자 어머니의 의식이 간혀있는 곳이다. 어머니가 아들들이
죽은 '고가'를 수호하는 것은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경에게 '고가'는 벗어나야 할 과거 시대의 유물이자 구속의 공간이다.
이경과 옥희도가 데이트를 하는 장소인 완구를 파는 노점상은 황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도피처이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공간이
다. 그곳의 침팬지는 두 인물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의 고독을
느끼게도 한다. 또한 침팬지는 태엽을 감으면 자동적으로 위스키를 따라
마시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삶의 목표를 잃고 원치 않는 일을 반
복해야만 하는 이경과 옥희도의 모습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박완서의 작품은 대개 모녀관계와 딸의 주체성 성립이 주제로 등장하
는 모계 문학이다. 이는 주권 상실 시대의 부계 문학으로 일컬어지는 남
성 작가들의 전후 소설과 대비된다. 부계 문학은 신화적 모성이나 모성
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반면, 박완서의 문학은 현신과 더불어 허위와 기
만, 소유욕과 광기를 모두 가진 모성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모성을 탈-

신화화한다. 그녀의 작품에서 어머니는 종종 ‘딸의 어머니’가 아닌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살아간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딸은 ‘살아 있음’에 대한 죄의식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에 사로잡힌다. 모녀 사이의 이러한 모순과 갈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장이 죽거나 부재하게 되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라 결국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정립하도록 강제한다. 많은 경우 박완서의 작품 속 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딸은 ‘아들의 어머니’에 집착하는 모성이나 무한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이나 모두 이데올로기적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갔던 길을 따르려는 낡은 주체를 허물고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통과제의적 시간을 갖게 된다.**

[현대소설5. 아우를 위하여 - 황석영]

[작품의 줄거리] : 나는 군대에 간 동생에게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쓴다. 나는 노깡에 들어갔다가 공포심에 기절했던 일 때문에 노깡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나의 학급은 영래 일당의 폭력과 아이들의 복종 속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교생 선생님이 와서 그 부당함을 깨우친다. 그러자 불만을 품은 영래 일당이 수업 시간에 교생 선생님을 모욕하는 종이를 돌린다. 이에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항한다. 나는 애써 보지도 않고 무서워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된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노깡에 들어가 무서움을 극복하게 된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술렁대고 있었다. 여자선생이 오게 되었다며 방금 메뚜기랑 같이 제과점에 얘기하러 갔다는 것이다. 나는 공연히 어제 본 그 누나가 아닐까 하는 기대로써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온다, 와." 언제나 파수를 보는 아이가 호들갑을 떨며 창고 교실로 뛰어들어왔다. 메뚜기가 훨씬 앞서서 들어오고, 한참이나 지루하게 기다린 느낌 뒤에 여 선생이 들어왔으며 그이는 약간 수줍어하듯 보였다. 입구에 어깨를 동그랗게 움츠리고 섰는 분은 역시 어제의 그 누나였다. 나는 나를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영래의 "차렷" 구령소리가 그날따라 나를 수치에 떨게 만들 줄은 몰랐다. 나는 "경례"에 따라 머리를 숙이면서 처음으로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메뚜기가 그이에게 좀 더 앞으로 나오시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에 또, 이번에 사범학교 졸업반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교생실습을 나오셨다. 내가 교장선생님께 간청해서 상급학년에서는 우리 반만이 그 모범학급으로 뽑혀 모셔오게 된 것이다." 메뚜기는 이어서 교생 선생님의 성함과, 일주일의 반쯤을 그분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메뚜기가 게으른 자기의 수업 공백을 메워 보려는 게 틀림없었다. 누군가 "교생이 뭐야. 선생하군 다르냐....." 하자마자 그이는 청아하고 푹푹한 발음으로 "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나도 선생님 되는 공부를 하러 온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뭐가 되지요?" 엉뚱한 질문에 아이들이 불규칙하게 "병아리요." "병아리는 커서 뭐가 되나요?" 아이들은 이번에는 일제히 "닭이요." "웁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병아리 선생님인 셈이죠. 호호호." 아이들이 와 하고 웃었으며 메뚜기도 꺾꺾 웃었다.

(중략)

며칠 후에 선생님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이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책을 펴지도 않고 몹시 슬퍼 보이는 얼굴로 말했던 거였다. "어른들이 제일 나쁜 점은 자기 잘못을 애써 감추려 하는 그것입니다. 천박한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내세우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기에 이런 창고에서 책상도 없이 공부할망정 마음씨와 배우려는 자세가 소박하고 고울 줄로만 여겨왔습니다. 여러분은 못된 어른들의 본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며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합니다. 어제 방과 후에 학급대표들을 돌려보내고 나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급 전체의 뜻이 아니었기를 나는 믿으려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선생님이 영래네 패들의 '성의 표시'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이다. 저 깡패 같은 더러운 자식들이 내 선생님께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외제 나일론 스타킹을 드렸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불같이 성이 치밀어올라 잠들기 전에는 그 녀석들에게 수십 번씩 욕을 되풀이 퍼붓고야 마음이 가라앉곤 했다.

한번은 기지촌 아이들 중의 하나가 양조장 집 아들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우연히 알아채게 되었다. "어린이는 왜 점심을 안 싸오지, 배고프지 않아요?" 울먹울먹하며 그애는 연방 빼앗아간 쪽을 바라보았고, 그놈은 입가에 손가락을 대며 주먹을 쥐어 흔들어 보였다. "자이리 와 나하구 같이 먹어요." 빼앗긴 아이가 수줍어하며 가까스로 말했다. "선생님..... 싫어요. 진짜는 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안 먹을까, 몸이 아픈가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웃음을 방긋 머금고 말했다. "아 착한 어린이군요. 누구를 위해 주었군요, 그렇죠?" 그 애가 더욱 울상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재빨리 말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렇게 서로 돕는 정다운 행동에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남의 도시락을 앞에 놓고 있던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이 학급 친구의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지요.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어린이가 몇 사람 더 있을 줄로 압니다. 내일부터 누구든지 그런 친구의 도시락을 함께 싸올 어린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를 하지 말고, 어머니께 여쭙봐서 허락을 얻으면 말이에요."

(중략)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셋노랑게 질려있었다. "너희들 반장에게..... 이러기냐?"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둬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찢어, 임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물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말까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딱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뻑 느꼈던 것이었다.

나는 노깡 속의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구 있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졸라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할 적이 있었지. 그날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내 악몽의 비밀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말했다. "애써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무서워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 끝내 무서움에서 놓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뒤 몇 번이나 벼른 끝에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고, 노깡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더랬지. 나는 그 속의 빠다귀가 개뻐, 소뻐, 사람 빠다귀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아무렇지 않게 길을 들었던 것이다.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잦은 교체를 통해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기에 나약한 민중의 분산성을 보이고 있다.
 - ③ '노깡'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영래'와 유사하다.
 - ④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교생 선생님을 괴롭혔던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통찰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도 수줍어하는 그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던 체구마저도 왜소하게 짜부라진 채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적에 ‘치이즈’하고 웃듯 그런 미소를 얼굴에 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미소 짓는 기표의 얼굴을 보면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계속했다. 담임은 더욱 깊은 이해로써 우리 반을 돌봐주었다. 반장 형우는 그 나름의 성실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중략)

“자, 이제 고만 돌아가십시오. 애들하고 의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담임 선생은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갔다. 그네는 교무실을 나가며 자꾸 아쉬운 듯 우리들 얼굴을 돌아다보았다.

그네를 배웅하고 돌아온 담임이 의자에 소리나게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었다가 내뿜으며 투덜거렸다.

“내일 천일 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나?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그는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의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전상국, 『우상의 눈물』

- ① 위 글의 ‘영래’와 <보기>의 ‘기표’는 모두 물리적 폭력을 휘둘러 학우들을 지배했던 인물들이다.
- ② 위 글의 ‘교생 선생’이 진심으로 학생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데 비해 <보기>의 ‘담임’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우선시한다.
- ③ 위 글의 ‘나’가 교실 안의 권력 관계 및 ‘교생 선생’의 교육법을 어른이 되어야 이해했던 것과 달리 <보기>의 ‘나’는 ‘담임’과 ‘형우’의 위선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
- ④ 위 글의 ‘메뚜기’와 <보기>의 ‘형우’는 권력자에 빌붙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 ⑤ 위 글에서처럼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보기>의 ‘기표’가 아닌 ‘담임’과 ‘형우’의 부당한 권력이 제거되어야 한다.

[현대소설6. 비연계, 황순원 - 너와 나만의 시간]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낙오한 주 대위와 현 중위, 김 일병 세 사람은 무턱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 부상당한 주 대위를 교대로 업고 오던 현 중위는 혼자 떠나지만, 김 일병은 주 대위를 업고 오다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죽음을 몸 가까이 느끼게 된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꽃소릴세.”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 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폼니까?”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밀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꽃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루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꽃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 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거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누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킁킁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업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리고는, “앞으루!”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젯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A]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루!”

“그대루 똑바루!”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짚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도 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짓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3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사건의 입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만연한 문체를 사용하여 대상과 장면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⑤ 환상적인 장면을 삽입하여 절망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윗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총’은 극한의 상황에 몰린 주 대위가 자결할 수도 있었던 수단이다.
- ② ‘개 짚는 소리’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전환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권총’은 궁극적으로 김 일등병을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포성’은 처음에는 인물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절망감을 주고 있다.
- ⑤ ‘개 짚는 소리’는 그 주변의 인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물들의 경계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39. [A]의 상황에서 김일병이 <보기>의 장면을 떠올렸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르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① 조금하게 서둘렀던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현실 극복은 서로가 힘을 합해야 가능함을 느꼈기 때문에
- ③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 ④ 부조리한 현실에도 곳곳한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에
- 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위로했기 때문에

[현대소설7] : 문순태의 정소리

“봉구, 덕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덩씩 껴안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들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악물고 참아 냈다. 강촌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만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 사람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 메기국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경중경중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 들고 나서는 거였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닿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자네 정신 말짱히니께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칠복이는 아이를 어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춰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평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캐록 캐록 기침을 하자, 바깥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 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쭈셔 대는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
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
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했다.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
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쭈셔넣어 주며 울먹울
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
지고 땅겉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
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
이 꼭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쭈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면서 불
쭈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겉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
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 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 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찌면 바람 소리와도 같은 그 징
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소리지, 징소리지.”

봉구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줍처
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
꾸만 컷바퀴를 후벼파고 들려오는 징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지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팔만이도, 덕철이도, 강촌영감도 다 같이 방울재 안통 여기저기
서 설새없이 들려오는 징소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
다.

징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은, 그게 어찌면 그들한테 쫓겨
난 칠복이의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

-문순태, <징소리>

<보 기>

<징소리> 연작에서 물과 불의 이미지는 다양한 속성을 지
니고 작품 곳곳에 등장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
를 부각시킨다. <징소리> 속 물은 댐의 호수, 비, 안개 등 부
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종종 인물들의 죽음과 이어지며 비
극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하지만 물은 타락, 죄악이나 부정함
등의 요소를 씻어 내고 새로운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
기도 하다. 순덕의 익사 행위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몸을
더럽힌 자신의 죄를 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
한다. 그녀의 죽음은 영원한 시간으로 뛰어드는 자연과의 동
화의 순간이기도 하다. <징소리> 속 불은 방울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의 이미지 혹은 죄의식의 이미지
를 환기한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땅을 잃은 강촌택이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할 때 불은 곧 고향상실의 상징이다. 10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단아 손 판도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빈집마다 불을 놓으며 뛰어다닐 때 불은 고향
을 파괴하는 외지인, 침입자로 기능한다.

- ① 이 글에서 ‘소나기’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겠군.
- ② 칠복의 ‘눈물’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반성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기능을 하게 만들겠군.
- ③ 성냥불이 ‘담배’에 붙는 것을 고려하면 성냥불은 인물의 저항 의지
를 고취시키는 도구로 볼 수 있겠어.
- ④ 칠복이 비추는 ‘램프 불빛’은 고향상실을 이미 경험한 이들에 대한
분노라고 보아도 무방하겠군
- ⑤ ‘램프 불빛’에 비춰지는 사람들은 침입자에 대해 목시적으로 긍정
하는 인물들이겠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각을 통해 인물의 지향하는 바가 드러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징’은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해결하는 매개체이다.
- ④ ‘징 소리’의 환청은 인물들의 죄의식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이다.
- ⑤ 강촌 영감을 인정보다 현실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현대소설 8 - 작품정리만 : 두 파산, 염상섭]

7.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꾸려나가는 정례 어머니는 집문서를 은행에 잡혀 얻은 30만원으로 가게를 시작했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자 국민학교 시절부터 동경여자대학교까지 동창인 김옥임의 동업 조건으로 10만원 밑천을 받아들이게 된다.

거기다가 정례 아버지가 물려받은 마지막 전장을 팔아 부리던 택시가 가게의 돈을 솔솔 빼가다가 거덜을 내자 **가게는 더욱 옹색해진다.**

일제 때 고관으로 행세하다가 광복과 함께 반민법(反民法)으로 몰락했고 중풍으로 누운 남편을 둔 **옥임은 고리대금융자로서 친구인 정례 어머니에게까지 마수를 뻗친다.** 옥임은 가게 보증금 영수증을 담보로 출자금을 1할 5부의 이자돈으로 돌려 제 살 궁리만 한다.

정례 어머니는 옥임을 통하여 알게 된 교장선생이라는 영감에게서 5만원을 더 빌려 가게의 형편을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옥임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장 영감에게 일임하여 원금에 빌린 이자를 합친 액수의 이자를 갚게 만든다.

은행에 30만원, 옥임에게 20만원, 교장영감에게 5만원 도합 55만원의 빚을 걸머진 정례 어머니는 어느 날 황토현 정류장에서 만난 옥임에게 망신을 당한다. 두 달에 걸쳐 억지로 교장 영감의 빚은 갚았으나 급기야 석달째에는 보증금 8만원마저 되찾지 못한 채 빚으로 에우고 상점을 교장 영감의 딸 내외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

몸살감기에 울화로 누운 정례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정례 아버지는 옥임을 골릴 궁리를 하며 껄껄 웃었다. **광복 직후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물질적으로 파산하여가는 인간과 정신적으로 파산하여가는 인간의 두 유형을 정확하고 치밀한 객관적 사실묘사로써 생생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정례 어머니의 물질적 파산 과정이라든지 김옥임의 정신적 파산의 심리적 추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중간이득을 획득해내는 교장 영감이라는 자의 간악한 행위 등이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며 실제적인 삶이었다.

- 대상을 바라보는 인물의 태도 : 정례 모친은 옥임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 옥임에게 해 줄 수 있는 시 : 욕심난다 하고 몹쓸 일을 하지 마라. /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 보느니라. / 한 번을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과 고향 이야기(히말라야 카일라스의 풍경, 종교, 세계관)를 들으며 자신의 미국 이민 시절 겪었던 상처를 회상하면서 카밀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 카밀과 수연의 사이를 알게 된 수연의 오빠가 극심한 반대를 하면서 수연과의 갈등이 커지자 카밀은 그녀를 떠나고, 얼마 후 수연은 자신이 카밀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그녀는 카밀과 재회하여 딸 애린을 낳고 세 가족의 삶을 시작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자살 소식에 괴로워하던 카밀은 명동 성당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 인권 투쟁 농성을 시작하고 수연은 카밀을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투쟁을 돕는다. 그러나 농성은 한계에 직면하고 카밀은 어느 날 고층 빌딩에서 몸에 불을 붙인 후 '더 이상 죽이지 마라'를 외치고 뛰어내린다. 수연은 추락하는 카밀을 받아 내려다 함께 불에 휩싸이고 식물인간이 되어 버린다. 카밀은 즉사하고 수연은 수년 후에 생을 마감한다.

나올 수 있는나마스테 관련 철학 : 레비바스 : 대상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철학. 대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토끼전 답 : 2, 5, 5,

최척전 답 : 5, 4, 2

십청전 : 3, 5

광문자전 답 : 2, 3, 4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 1, 2

만복사저포기 : 3, 4, 3

구운몽 : 3, 4, 2, 5

만세전 : 2, 3, 3, 2

토지 답 : 3, 5, 4

삼포가는 길 답 : 2, 5, 4, 3

나목 답 : 1, 5, 1

아우를 위하여 : 3, 4

너와 나만의 시간 : 3, 5, 2

문순태의 징소리 : 3, 1

[현대소설 9 - 작품정리만 : 나마스테, 박범신]

- 작품 이름 : 나마스테
- 작가 : 박범신
- 작품 내용 : 어느 날 수연('나', 사회적 소수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으며, LA혹인 폭동으로 가족을 잃고 깊은 상처를 입은 채 한국에 돌아온 여성)의 집으로 카밀이 찾아온다. 수연은 점차 불법 체류 노동자인 카밀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수연은 카밀에게서 그의 한국 생활

● 모두 유대종 강사 개인의 2차 저작물이므로 저작, 배포를 엄중히 금합니다. 이용권만 드린 것입니다.

